

RAINBOWBOOKMARK IS...

Rainbowbookmark(2015) is a newly organized group for Korean queer literature. We introduce queer literature—literature which involves LGBTIAOP characters or themes—published in South Korea. It may surprise you that there are over 200 works of queer literature in Korea. These works show what it is like to live as a 'queer' in Korea; we face homophobic situations on a daily basis, so a lot of us choose to be inside the closet. However, we believe that a great man makes a greater book, and it makes the greatest reader. We believe that, in a well-written, mind-gripping, rainbow-glowing piece of literature, Korea will become a better place for desperate yet sharp readers. Please visit our website, follow our official tweeter, or send us an e-mail. It will be a great support for our upcoming events. We plan to open an English website, hold open seminars, and organize meetings with LGBTIA authors. Thank you!

I hope the story we're going to make together will be about harmless, soft foam and healthy smile of everyday life: not cold, sharp passion or urgency of birds throwing their bodies into a waterfall, prepared for death.

-Yun, Ihyeong, Luka (2014)

무지개책갈피는?

소설 읽기를 좋아하는 열세 살 길동이는 같은 반 소년 무개를 사랑하게 됩니다. 마음 여린 문학소년의 마음은 낮은 사랑 앞에 대책 없이 흔들립니다. 쉬는 시간 습관처럼 찾은 도서관에서 그는 남몰래 동성애, 게이, 이반 등의 단어를 검색해봅니다. 이 소년은 어떤 책과 만나게 될까요? 그가 우연히 펼쳐본 책들 중 몇 권이나, 그의 마음을 짓밟거나 흔들지 않고 제대로 붙잡아줄 수 있을까요? 길동이와 같은 청소년은 물론 많은 성인 독자들이 찾는 바로 그 이야기들. 퀴어문학이, 한국에도 있을까요?

네, 한국에도 퀴어문학은 있습니다. 문학은 퀴어 당사자의 삶을 가장 구체적이고 감각적으로 '체험'할 수 있게 한다는 점에서 당사자뿐 아니라 비당사자에게도 울림을 줄 수 있는 교감의 공간입니다. 한국의 퀴어문학 작품들은 한국 사회 안에서 성소수자로 살아간다는 것의 의미를 커밍아웃, 아웃팅, 혐오 범죄, 기혼 이반, 종교적 대립, 대안가족 등의 다양한 소재를 통해 보여주고 있습니다.

무지개책갈피는 "한국에도 퀴어문학이 있나요?"

라는 질문에 답하기 위한

한국퀴어문학종합플랫폼입니다.



WEB

rainbowbookmark.com

MAIL

rainbowbookmark@hotmail.com

TWT

@rainbowbookm

성소수자를 소재로 한 국내외 문학작품 소개
한국문학의 다양성 독려
정치적 올바름과 당사자성을 기반으로 한
비판적 리뷰 공유

모든 당사자들을 있는 힘껏 응원하는,
한국퀴어문학을 다루는 소박한 공간



한국퀴어문학종합플랫폼

무지개책갈피
Rainbowbookmark

무지개책갈피 후원계좌

국민은행 823701-04-291039 이보배(무지개책갈피)

UPCOMING PROJECTS

01

LGBTI
청소년에게
추천합니다

02

퀴어문학의
클래식을
원하시는분

03

한국감성으로
쓰여진
당사자문학



국외

국외 퀴어문학 추가

A B C

무지개책갈피 영문 홈페이지 제공



작가와와의 만남

문학의 계절 가을 퀴어문학 당사자 작가와 독자가 만나 무지개 대화를 나누는 자리



일일 북카페

국내최초 일일 퀴어문학 북카페겸 도서관



오픈 세미나

독자들과 박식하고 색시하게 이야기 나누는 자리



“엄만 내가 양성애자라면 어때?”
“어떻긴? 그런가 보다 하지.
범죄가 아닌 이상, 누구도 그걸
억압해서는 안 돼. 난 네가
다른 사람들과 좀 다르게
너의 방식으로 행복을 추구하고
삶의 진실들을 경험하는 것에
반대하지 않아.”

전경린 | 엄마의 집 (200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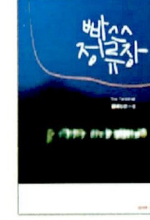
싱글맘 엄마와 양성애자 딸의 따뜻한 가족이야기



나는 두 번 태어났다. 처음엔
여자아이로, 유난히도 맑았던
1960년 1월의 어느 날
디트로이트에서. 그리고 사춘기로
접어든 1974년 8월, 미시간 주
피터스키 근교의 한 응급실에서
남자아이로 다시 한 번 태어났다.

제프리 유제니디스 | 미들섹스 (2002)

여성으로 살다 남성 염색제를 발견한 이의 이야기



“고향에 가도 거기에는 내가 없어.
사람들도 나를 모르고, 나도
사람들에게 나라고 말 못하고.
사람들이 아는 나도, 내가 아는
나도 거기에는 없어. 날 수술해준
의사선생님 병원이 있는 압구정에
가서 내 고향집네, 할 수도 없는
노릇이고. 흐흫.”

김비 | 빠쓰 정류장 (2012)

MTF 트랜스젠더 작가의 당사자성이 담긴 장편소설



“누나... 기분 안 나빴어?”
누나가 나를 바라보며 피식 웃었다.
“난 상관없어. 좀 야속하게
들릴지도 모르지만 결국 내 연애
아니고 네 연애고, 네가 감당할
몫이잖아?
...그래서 말인데, 너 정말 괜찮아?”

송경아 | 누나가 사랑했든 내가 사랑했든 (201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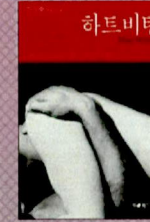
똑같은 남자를 사랑하게 된 누나와 게이 남동생을 그린
청소년소설



“넌 유별나지 않아. 혐오스럽지도
않고, 미치지도 않았어. 누구와도
다르지 않아. 너 역시 사람들이
흔히 자연이라고 부르는 것의
일부야. 다만 넌 아직까지 설명을
듣지 못했을 따름이야. 그러나
언젠가는 그런 날이 올거다 ...
용기를 내.”

래드클리프 홀 | 고독의 우물 (1928)

현대 영문학사 최초의 레즈비언/FTM 소설



바에 앉아 있는 사람들은 대양
위에 점점이 떠 있는 작은 섬처럼
보였다. 그리고 그 섬들 사이로
누가 만들었는지도 모르는
규칙들이 유유히 떠다니고 있었다.
서로의 마음속에 감춰진 경계심과
호기심은 너무나 크고 은밀한
파도였다.

김정수 | 하트비팅 (201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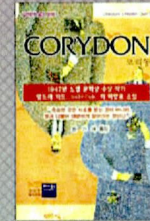
게이 당사자 작가의 작품집



“저는 거짓말에 지쳤어요.
전 게이예요. 모든 사람들이 저를
갑자기 좋아해줄 거라고는
기대하지 않아요. 하지만 이제는,
여러분이 저를 좋아하든 좋아하지
않든, 여러분은 제가 누구인지
알고 있어요.”

엘렌 위트링거 | 이름이 무슨 상관이란 (20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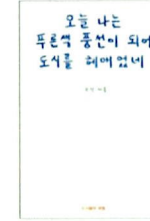
정체성의 문제를 깊이 있게 다룬 청소년소설



이성애의 경우와 꼭 마찬가지로
동성애에도 여러 가지 온갖 수준이
있고, 여러 가지 온갖 뉘앙스가 있어
독점적 동성애가 검은 색이고
독점적 이성애가 흰색이라면,
그 사이에는 온갖 종류의 회색이
존재하잖아.

앙드레 지드 | 코리돈 (1924)

지드의 미발표 소설. 동성애에 대한 쇼크라테스식
대화 모음집



어쩌면 오늘 나는 에이즈에
걸렸을지 몰라/그저께 읽은
정치잡지의 기사 이야기처럼/
나도 눈이 멀어가는 에이즈 환자가
되어/제발 값싸게 약을 사먹을 수
있게 해달라고/명동성당 거리에서...
[「시네마 모델」 중]

오신 | 오늘 나는 푸른색 풍선이 되어 도시를
헤매었네 (2010)

게이 당사자 작가의 진솔한 시집